

#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4월 2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열대거세미나방 올해 첫 발견...최근 5년 중 가장 빨라-9면(2026.04.20.)	기술지원조정과	한국영농신문
○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참가자 모집-2면(2026.04.22.)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신문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2면(2026.04.22.)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신문
○	농업기술원, 내달까지 월동채소 생산 예측 조사 시행-3면	농업디지털센터	제주일보
○	종자 수요 데이터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2면	농업디지털센터	제민일보
○	종자 구입량 등 월동채소 면적 예측 ‘주목’ -6면	농업디지털센터	제주매일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예측 한다-6면	농업디지털센터	삼다일보
○	감귤 재배학 과정 기초 교육생 모집-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기초부터 배우는 감귤 재배학 교육생 만족도 ‘97%’ 기록-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감귤재배학 교육생 모집 오늘부터 선착순 40명 접수-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제주도농업기술원 사전교육-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道농기원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사전교육’ 실시-8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서부카라향연구회, 카라향 나눔-1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양배추·양파 생산비도 못 번다-3면	-	제주일보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노랑게 익어가는 보리-3면	-	제주일보
○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한 신품종 ‘감황키위’ 불량률 높아 농가 시름-4면	-	제주일보
○	양배추 수확 분주-4면	-	삼다일보
○	가정의 달 제주 농특산물 세일페스타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최대 30% 할인-4면	-	한라일보

(한국영농신문: 2026년 4월 20일)

○ 열대거세미나방 올해 첫 발견...최근 5년 중 가장 빨라-9면

## 열대거세미나방 올해 첫 발견... 최근 5년 중 가장 빨라

### 제주 한림읍서 확인·조기피해 주의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올해 처음으로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의 도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당부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7일 한림읍 수원리에서 올해 첫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4일 빠른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

열대거세미나방은 봄철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비래해충으로, 옥수수과 기장 등 약 80여 종의 작물에 피해를 준다. 성충이 산란한 뒤 부화한 애벌레가 작물을 가해하며, 통상 피해 발생 시기는 5월

상순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는 발견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피해 발생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대거세미나방을 비롯한 비래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

특히 알에서 부화한 어린 애벌레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으며, 발생 초기 적기에 방제할 경우 피해율은 약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반면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율이 10~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애벌레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에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농업기술원은 현장 예찰을 강화해 비래해충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62개 지점에 트랩을 설치해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예찰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자료 배포, 휴대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비래해충 확산 방지와 방제 실천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농업기술원 이석준 지방농촌지도사는 "열대거세미나방을 포함한 멸강나방 등 비래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할 경우 농업재해대응팀 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 예찰 강화와 신속한 방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속한 방제와 신속한 4.20.제를 한국영농신문 9

(서귀포신문: 2026년 4월 22일)

○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참가자 모집-2면

## 2026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참가자 모집

### 경진부문(3부문)

- 1) 혁신사례: 스마트경영 기반 지역 농업과 농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 발표
- 2) 스마트콘텐츠: 신제품 홍보 및 신기술 보급 확대 등 농업인이 직접 제작한 쇼츠 영상
- 3) 라이브커머스: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실시간 판매

### 접수기간

2026. 4. 13.(월)~4. 30.(목)

- (접수) ~4. 30. → (사전심사) ~5. 11. → (혁신대회) 5. 14.

### 참가자격

도내 농업인 누구나

\* 최근 3년('23~'25년) 중앙단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동일 부문 수상자 제외

### 시 상

상장 및 부상 6점(부문별 최우수, 우수 각 1점)

\* 각 최우수 수상자는 1:1 레벨업 교육, 농촌진흥청 혁신대회 참가,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홍보 부스 지원

### 접수처

부문별 신청서 및 출품작 이메일 제출(jejublue@korea.kr)

### 문 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지도협력팀(☎760-7512)

4. 22.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agri/index.htm>) 서귀포신문 2

(서귀포신문: 2026년 4월 22일)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2면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	
일 시	2026. 5. 9.(토) 10:00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남원읍 하례리) 일대
참여대상	도민·관광객 등 누구나 / 300명 내외 * 사전예약 필수
주요내용	굴꽃계절길 걷기, 굴꽃 화전 만들기, 소원나무 꾸미기, 하굴청 담기 등
사전예약	제주감굴박람회 누리집( <a href="https://www.jicexpo.com">https://www.jicexpo.com</a> )
체 험 비	(사전예약) 5,000원, (당일 현장접수) 15,000원
문 의	(사)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 762-3091

4. 22.

서귀포신문 2

(제주일보: 2026년 4월 28일)

○ 농업기술원, 내달까지 월동채소 생산 예측 조사 시행-3면

농업기술원, 내달까지 월동채소 생산 예측 조사 시행

종자 신청량 선제적으로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월동채소 수급 불안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자 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 예측 조사'를 오는 5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 수급 조절 방식을 기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 재배계획과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도내 파종 가능 물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미리 추산할 수 있다.

종자 수요량은 농가 재배로 이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 지표로,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사 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등 도내 주요 월동채

소 5개 품목이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재배 농가 약 500곳과 종자·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 파종·정식 시기, 종자 구매계획,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과 함께 기후변화와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종자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올해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 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6월 중 정책 부서와 관계기관에 공유되며, 농업기술원은 9~10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로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4. 28.  
제주일보 3  
신유한 기자

(제민일보: 2026년 4월 28일)

○ 종자 수요 데이터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2면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 종자 수요 데이터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가의 재배 계획과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를 통해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미리 추산할 수 있다.

종자 수요량은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이다.

도내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 파종·정식 시기 등 실제 재배 의향과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4.28.

제민일보 2

(제주매일: 2026년 4월 28일)

○ 종자 구입량 등 월동채소 면적 예측 ‘주목’ -6면

### 종자 구입량 등 월동채소 면적 예측 ‘주목’

도농기원, 500농가·종자업체 31곳 설문조사  
월동무·당근·양배추 등 9~10월 조사 정확도 ↑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이 도내 농민들이 신청한 종자 수요량과 재배 계획을 결합해 월동채소 재배 면적을 예측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농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도내 월동채소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농업기술원은 주요 월동채소의 종자 신청량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도내 파종 가

능 물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미리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자 수요량은 농가 재배로 이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의 지표로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을 조사한다.

재배농가에는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 파종·정식 시기, 종자 구매 계획,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과 함께 기후변화,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종자신청량은 실 재배면적을 가능할 수 있는 핵심 선행지표로 활용하며 생산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결과는 6월 중 정책부서와 관에 공유한다.

4. 28. 제주매일 6면

(삼다일보: 2026년 4월 28일)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예측한다-6면

## 종자 신청량으로 월동채소 생산량 예측한다

농가 재배 계획·종자 수요 데이터 결합...생산량 예측 정밀화

월동채소 종자 수요를 통한 생산량 예측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5월까지 ‘종자 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 예측 조사’를 실시해 수급 불안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산물 수급 조절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도로, 월동채소 종자 신청량을 선제 분석해 파종 가능 물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재배 규모를 추산한다. 종자 수요량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인 만큼 농가의 재배 계획과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

로콜리, 양파 등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이다. 재배 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확인이 병행된다. 농가의 작목별 재배면적 증감, 파종·정식 시기, 종자 구매 계획, 품종 선택 등 재배 의향을 비롯해 기후변화 및 최근 재배 동향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종자 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 유통량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종자 신청량은 실제 재배 면적을 가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선행지표로 활용돼 생산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6월 중 정책 부서와 관계 기관에 공유된다.

농업기술원은 9~10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2024~2025년산 월동채소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25~2026년산 재배면적이 늘었지만 이후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올해 농가의 재배 의향이 반영된 종자 신청량의 변화는 향후 수급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농업도 이제는 지난해 가격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예측과 선제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종자 수요라는 농업 현장의 선행지표를 분석해 농가가 생산을 사전에 조절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 28. 삼다일보 6면  
김현중 기자 tazan@samdalilbo.com

(제민일보: 2026년 4월 28일)

○ 감귤 재배학 과정 기초 교육생 모집-6면

# 감귤 재배학 과정 기초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감귤 재배에 도전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초부터 배우는 감귤재배학 과정’ 교육생을 28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감귤 재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재배 생리 중심 관리와 병해충 대응 전략을 교육해 ‘이론을 기반으로 농사짓는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은 다음달 27일부터 총 3회·9시간 과정으로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감귤 재배에 필요한 기본 농업용어와 정지·전정 기초 이론을 다루고 2회차에서는 광합성·호흡·영양생장·생식생장 등 재배 생리를 중심으로 작물 이해도를 높인다.

3회차에서는 주요 병해충 관리 방법과 작물보호제 활용, 시비와 수분 관리 등 기초 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28.

김제민일보 6화

(삼다일보: 2026년 4월 28일)

○ 기초부터 배우는 감귤 재배학 교육생 만족도 ‘97%’ 기록-6면

## 기초부터 배우는 감귤 재배학 교육생 만족도 ‘97%’ 기록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 기술센터는 지난해 ‘기초부터 배우는 감귤 재배학 과정’을 운영한 결과 교육생 만족도가 97%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97%는 영농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해당 교육 과정은 감귤 재배에 도전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올해 교육은 5월 27일부터 총 3회(9시간) 과정으로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운영된다.

1회차는 감귤 재배에 필요한 기본 용어와 정지·전정 기초 이론을 다루고, 2회차는 광합성·호흡·영양생장·생식생장 등 재배 생리를 중심으로 작물 이해도를 높인다. 3회차 땀 병해충 관리 방법과 작물보호제 활용, 시비 및 수분 관리 등 기초 재배 기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

교육생 40명 모집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감귤 재배 기초에 관심 있는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등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samda삼다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4월 28일)

○ 감귤재배학 교육생 모집 오늘부터 선착순 40명 접수-6면

## 감귤재배학 교육생 모집

오늘부터 선착순 40명 접수

기초부터 배우는 감귤재배학 과정 교육생 모집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감귤재배에 도전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해당 교육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내달 27일부터 총 3회, 9시간 과정으로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운영된다.

1회차에서는 감귤 재배에 필요한 기본 농업 용어와 정지·전정 기초 이론을 다루고, 2회차에서는 광합성·호흡·영양생장·생식생장 등 재배 생리를 중심으로 작물 이해도를 높인다.

3회차에서는 주요 병해충 관리 방법과 작물보호제 활용, 시비 및 수분 관리 등 기초 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28일 오전 9시부터 4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감귤 재배 기초에 관심 있는 관내(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농업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전화(760-7631~2) 또는 4.28.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라일보 6**

(제민일보: 2026년 4월 28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사전교육-10면



## 제주도농업기술원 사전교육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 김태균)은 27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스터디 그룹 운영 안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 디지털 전환 ‘제주DA’ 플랫폼을 설명하고 참여자 의견을 수렴했다. <sup>4.28.</sup> 제민일보 10

(삼다일보: 2026년 4월 28일)

○ 道농기원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사전교육’ 실시-8면

## 道農기원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사전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27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스터디그룹 운영 안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제주DA’ 플랫폼을 설명하고 참여자 의견을 청취했다.

4. 28.  
삼다일보 8

(제주매일: 2026년 4월 28일)

○ 서부카라향연구회, 카라향 나눔-12면



## 서부카라향연구회, 카라향 나눔

서부카라향연구회(회장 김상근)는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천사의 집'과 '몽생이 다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해 카라향 210kg을 기부했다.

4. 28.  
제주매일 12

(제주매일: 2026년 4월 28일)

○ 주간농업농촌소식-6면

#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6-15호(2026. 4. 24.)

## 농업현장 중심 실용·혁신 농업기술 개발·보급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 노지감귤

○ 시비관리: 꽃이 많은 나무 4월 하순~5월 상순 경 요소 10kg/10a 살포

### ■ 만감류

- 온도관리: (발아~백화기) 주야간 온도차 한라봉 15℃ 내외, 그 외 10~12℃ 이내
- 물관리: (출뢰기~백화기) 3~5일 간격 10~15톤/10a 관수
- 병해충관리: 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방제
- ※ 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 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제

### ■ 키위

- 신초관리: 결과지 충실도에 맞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 꽃봉리 숙기: 결과지 10cm 내외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 병해충관리: (꽃썩음병) 꽃 피기 20일 전부터 10일 간격 적용약제 3회 이내 살포

### ■ 초당옥수수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
- ※ 알에서 부화한 초기 유충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음

### ■ 단호박

- 낮 기온 높아지면 터널 비닐을 뚫어 고온피해 예방
- 정식 후 30일 경 터널비닐 제거, 줄기 유인, 1차 추비 실시

### <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 표준시비란?  
필지별 토양 양분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하여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결과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을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과 상품성에는 차이가 없었음
- 마늘 실증사업 현장평가회: 5월 중순, 대정읍 일원(문의: 760-7352)

토양검정서비스  
이용 방법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 4. 28. 제주매일 6

(삼다일보: 2026년 4월 28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 ▲노지감귤
  - △시비관리=꽃이 많은 나무 4월 하순~5월 상순 경 요소 10kg/10a 살포
  - ▲만감류
    - △온도 관리=(발아~백화기) 주야간 온도차 한라봉 15도 내외, 그 외 10~12도 이내
    - △물 관리=(출뢰기~백화기) 3~5일 간격 10~15t/10a 관수
    - △병해충 관리=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방제/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누른무늬병 예방 및 곱응애 방제
    - ▲키위
      - △신초 관리=결과지 충실도에 맞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 △꽃봉리 숙기=결과지 10cm 내외일

-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 △병해충 관리=(꽃썩음병) 꽃 피기 20일 전부터 10일 간격 적용약제 3회 이내 살포
  - ▲초당옥수수
    - △병해충 관리=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나방류 유충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알에서 부화한 초기 유충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음
    - ▲단호박
      - △낮 기온 높아지면 터널 비닐을 뚫어 고온피해 예방
      - △정식 후 30일 경 터널비닐 제거, 줄기 유인, 1차 추비 실시
      -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 ▲표준시비란?=필지별 토양 양분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해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을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과 상품성에는 차이가 없었음.



토양검정서비스 이용 방법 4. 28.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4월 28일)

○ 양배추·양파 생산비도 못 번다-3면

# 양배추·양파 생산비도 못 번다

## 도의회 농수축위, 가격 폭락 대책 주문...비료 품질도

양배추와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급 안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서울 가락시장에 따르면 이달 양배추 경락가격은 8kg(상품)에 4913원으로 평년(8000원)보다 61%나 급락했다.

조생양파 경락가격은 15kg(상품)에 1만941원으로 평년(1만9000원) 대비 42%나 하락했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시세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198만㎡(약 60만평), 전남 무안은 99만㎡(약 30만평)의 양배추를 산지 폐기했지만 소비 침체와 중동 사태로 시세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조생양파는 중국산 수입 양파의 물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했다. 수입 양파는 2022년 7만5539t에서 204.28.13만5103t으로 갑절 가까

제주일보 3

현기종 제주도의회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2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양배추는 평년가격도 안 좋은데 이보다 60% 가까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며 “월동채소 대신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토양생태환경보전 사업의 품목과 예산을 늘리도록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해 농민 부문이 있어서 올해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계획별, 품목별 매뉴얼을 선정해 월동채소 가격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이 사업은 작은 예산으로 월동채소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데, 품목 확대나 지원단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주문을 해도 개선은 하지 않는다”

고 꼬집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읍)은 “농사를 직접 짓는 의원으로서 지역농협에 가서 요소 비료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품질이 됐다”며 “봄 영농철을 맞아 농가에서는 요소 비료를 확보하지 못하는데다 비료값마저 급등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영준 국장은 “요소 원자재의 38%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되는데, 중동전쟁으로 수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지역농협마다 확인한 결과, 7월까지의 요소 비료 재고가 있는데도 일부 농가에서 사재기를 하면서 최근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년 동안 구매실적이 있어야 요소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신규 농가나 경작 면적을 늘린 농가는 구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좌동철 기자

(제주일보: 2026년 4월 28일)

○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3면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

절기상 입하를 1주일 여 앞둔 2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들녘에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며 황금물결로 너울너울 춤추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일보: 2026년 4월 28일)

○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한 신품종 ‘감황키위’ 불량률 높아 농가 시름 4면

#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한 신품종 ‘감황키위’ 불량률 높아 농가 시름

꽃봉우리 기형률 50% 달해  
도의회 “묘목 자체가 문제”  
서귀포시 “보급 제한할 것”



감황(하트골드) 키위 열매 모습.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감황 키위’ 불량률이 높아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산 골드키위 품종인 감황(하트골드)을 2020년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농가 30여 곳에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성산읍에 키위 특화 단지가 조성돼 외국 품종인 제프리스의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꽃봉우리 기형률이 50%에 달해 오는 10월 수확을 앞두고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키위는 꽃봉우리 모양대로 열매가 나는데 일부는 모양이 평평해 수확기에 둥근 모양이 되지 않거나, 찌그러지는 등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27일 448회 임시회에서 “성산읍 제주일보 4에서 꽃봉우리 불량률이

50%나 나왔다”며 “농가에서는 꽃이 문제가 아니라 감황 묘목 자체가 문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률이 높아 상품 기준에 맞는 생산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황 키위는 구조적으로 기형률이 30%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성산일출봉농협을 통해 감황 확대는 제한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작목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했다.

감황은 농촌진흥청이 홍심과 옥천을 교배해 2015년 개발한 품종이다. 과일 무게는 130~140g으로 일반 키위보다 크고, 당도는 18브릭스 이상이다. 하트 모양을 닮은 독특한 외관으로 제주에서는 ‘하트골드 키위’라는 상표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은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로, 2024년 기준 재배면적은 전국의 30%, 생산량은 51%를 차지한다. 감황 재배면적은 294.8ha로 키위 전체 면적의 20.8%를 차지했다.

좌동철 기자

(삼다일보: 2026년 4월 28일)

○ 양배추 수확 분주-4면



**양배추 수확 분주** 27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며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4월 28일)

○ 가정의 달 제주 농특산물 세일페스타 탐나오 ‘제주 농부의장’ 최대 30% 할인

# 가정의 달 제주 농특산물 세일페스타 탐나오 ‘제주 농부의장’ 최대 30% 할인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농축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특산물 세일 페스타(농.세.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마감된다.

이 행사를 통해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www.tamnao.com) 사이트 내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안  
4.28. 한라일보 4제주 농부의 장’ 카테고리

전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청정 제주 고품질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